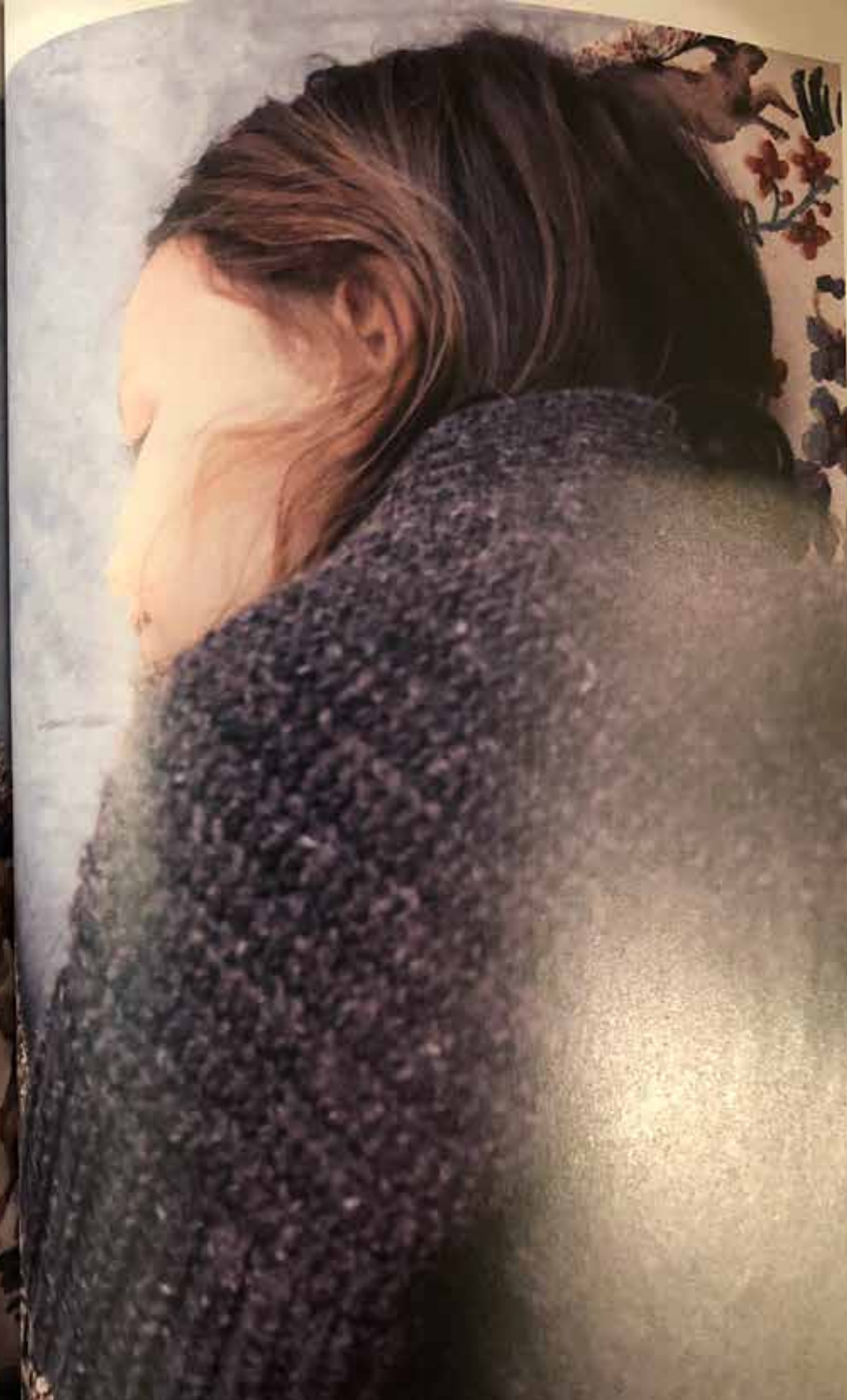


INTERVIEW

# Love, Family Love, Babaaà

스웨덴의 착한 니트웨어 브랜드 바바(Babaa). 바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마르타가 들려주는 가족, 일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상생의 디자인과 윤리적 경영 이야기.

EDITOR NAM KUK 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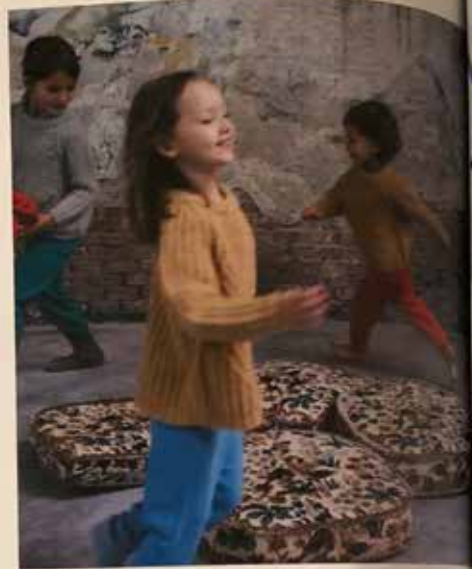




필소 (밀크 코리아)에서는 바바의 디자인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딸들을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Hola! 스페인에서 패밀리 니트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직물 디자이너 마르타(Marta)예요. 아일랜드인 남편, 세 아이와 함께 마드리드에 살고 있어요. 6년 전 자연 소재와 니트가 주는 편안함이 좋아 니트웨어 브랜드 바바(Baba)를 론칭하게 되었죠.

저도 니트 아이템을 좋아해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좋거든요. 니트웨어 브랜드인 바바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바바의 브랜드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아일랜드에서 니트웨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2011년 연봉이 꽤 높은 유명 패션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기였거든요. 또 생산자와 가까이에서 일하며 그들과 함께 직물 산업에서 좀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환경을 존중하되 퀄리티가 높지만 누구나 쉽게 접하는 니트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러던 중 직물 산업의 유산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고, 유럽의 질 좋은 니트웨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위해 스페인 북부에서 생산하는 최상급 모직과 담부 안달루시아의 놀라운 코튼을 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안달루시아는 바바의 탄생한 곳이 되었죠. 바바는 가족과 환경, 퀄리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100% 천연 소재는 바바의 아이덴티티로 여겨지네요. 소재의 선정 과정도 궁금합니다. 디자이너라면 건강과 지구 환경을 위해 자연 소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연 소재는 통기성이 뛰어나고 생분해성을 지녔죠. 그리고 입으면 훨씬 근사해요. 플라시틱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있고, 엄마들은 내 아이에게 합성 원사로 만든 옷을 입히길 꺼리죠. 우린 울이나 아크릴로 만든 걸려를 입는 순간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아이들은 더 낫게 알아채거든요. 바바는 최종 생산하는 실편 아니라 실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브랜드의 울은 스페인



의 직물 장인들이 엮고 염색하는데, 이 모든 공정을 바바의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기르는 양에게도 관심이 많죠. 동물들이 올바르게 다루지는 것에서부터 디자인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대량생산하는 울은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브랜드의 공급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페인에서 찾을 수 없는 울은 이탈리아의 공인된 유기농 생산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코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합성 공장이나 아동 노동력 없이 스페인에서 공정하게 생산하는 민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라예젠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것이 최종 완성품에 드러 납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앙달루스 함께 초원을 기념했고, 안달루시아의 문화 수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역의 섬유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보았어요. 바바는 다른 곳보다 좀 더 미반, 좋은 코튼과 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지역의 섬유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브라질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면화가 훨씬 저렴하지만, EU의 환경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우린 바르셀로나 인근의 작은 공장에서 니트를 생산합니다. 지불해야 할 가격이 높지만, 그 덕에 일하는 사람들은 EU 기준에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바는 직접 가격을 책정하려 애쓰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아요.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지역 산업과 환경을 위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 등은 자양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위해 시도하는 또 다른 좋은 작업이 있나요? 현재 지구에 지역은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수많은 난민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정부 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바바는 매달 국제 연합 난민 고등 관부관 사무소인 ACNUR과 비정부 기구인 CLEAR, 그리고 프로액티바 오픈 임스(Proactiva Open Arms)와 협업하며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커플 아이템도 있는 바바는 가족 모두를 위한 브랜드 같아요. 맞아요. 바바는 가족 모두의 옷을 만듭니다. 남편과 함께 입을 수 있는 커플 니트도 있고요. 겨우내 바바를 즐겨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한국은 이제 겨울입니다. 바바의 F/W 컬렉션은 매서운 추위에도 한결같은 포근함을 줄 것 같아요. 바바의 디자인 영감은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편사 그리고 일상적 삶의 모든 것에서 얻고 있어요. F/W 컬렉션은 지난겨울 아일랜드 서부에서 디자인했는데, 굉장히 춥고 외딴 곳이었어요. 덕분에 추운 겨울을 위한 의상을 금세 떠올릴 수 있었어요. 주로 실버 스트랜드(Silver Strand)라는 곳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아름다운 필리와 자갈치만 신선한 공기 등 모든 것이 멋진 디자인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니트 전문 브랜드 바바의 여름 컬렉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8년 S/S 시즌에 선보일 아이템도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름 니트를 사랑해요. 여름 컬렉션의 대부분은 아일랜드의 실에서 영감을 얻어요. 여름에 아일랜드 맥켄으로 향한다면 맨발의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을은 찬 바람을 막아줄 코튼 질감이 필요하죠. 1년 내내 코튼을 즐겨 입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요. 그리고 아주 무더운 시기에 맞춰 선보일 리넨 컬렉션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1940년대와 1960년대 스페인에서 리넨을 재해하고, 당시 집안의 모든 리넨을 직접 만들곤 하셨죠. 과정은 어렵지만 정말 아름다운 리넨이었어요. 몇 년 전 이 이야기는 더 플랜트(The Plant)라는 가드닝 매거진에 실리기도 했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실을 바바에 사용할 수 있어 정말 기뻐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리넨을 찾아볼 수 없기에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구하고 있어요.

당신은 세 아이의 엄마예요. 브랜드를 이끄는 디자이너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균형이나 노하우는 없어요. 단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혼란되어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한 건 게가 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남편, 세 아이와 함께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요. 어떤 때는 좋은 엄마였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죠. 바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잘 풀리거나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균형이죠. 전 가장과 일을 사랑하고, 둘 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 행복해요.



주목할만한 스페인의 키즈 패션 브랜드가 있나요? 또 아이 옷을 구매할 때 스페인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페인에는 많은 키즈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한 가지 유행보다 각각 마켓의 변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잘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페인 엄마들은 합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패스트 패션과 낮은 가격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소재나 공정 등에서 좋은 기준을 따르려는 모피 브랜드가 늘고 있어요. 아이 옷 나아가서는 패션 산업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에 감사해요.

브랜드를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언제나 정직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밀크)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감각적이고 현명한 한국의 엄마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도 궁금하고요. 초보간 한국 여행 계획도 같이 있어요. 어느새 한 해가 다 갔네요. 한국의 (밀크) 독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www.babaes

